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1월(제79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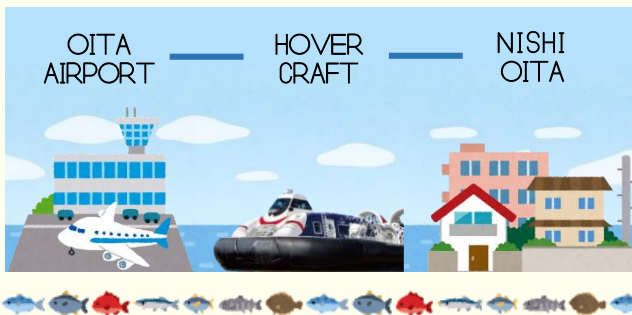
오이타 시내와 공항을 잇는 교통 수단, 호버크라프트
 **호버크라프트 이름이 결정됐습니다!**




오이타현은 오이타 공항과 오이타시 니시오이타(西大分) 지역을 연결하는 해상 교통 수단으로 일본 유일의 호버크라프트(공기부양선)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호버크라프트 운행에 앞서 현민과 국내외에서 오이타를 찾아 주시는 여러분이 친밀감과 애정을 느낄 수 있도록 명칭 공모를 진행하였는데, 총 2,507건의 응모 중 심사를 통해 ‘Tanso’, ‘Banri’, ‘Baien’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에도 시대(1603~1868)에 각각 현재의 구니사키시, 히지정, 히타시에서 서양의 천문학·의학·유학 등 폭넓은 학문을 연구하고 보급하기 위해 힘쓴 ‘분고의 3대 현자’인 ‘미우라 바이엔(三浦梅園)’, ‘호아시 반리(帆足万里)’, ‘히로세 단소(広瀬淡窓)’의 이름을 따 온 것입니다.

공항과 시내의 이동 시간을 60분에서 25분으로 줄여주는 호버크라프트는 지난해 1월부터 조선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완성이 기대됩니다!



히메시마에서 자연과 밤의 축제를 즐겨요!

 **히메시마촌 소식** 히메시마촌 姫島村

왕나비 도래지 アサギマダライ休息地



※도래 시기 한정 무료 관람 버스 운행

“봄”에는 바다를 건너 이동하는 우아한 왕나비가 히메시마촌에 자생하는 모래지치(여러해살이풀)의 꿀을 먹기 위해 5월 초~6월 초 무렵 남쪽에서 날아와 히메시마촌에서 쉬 후 북쪽으로 날아갑니다.

“가을”에는 세대가 바뀐 왕나비가 등골나무의 꿀을 먹기 위해 10월 중순에 북쪽에서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던 중 히메시마촌에서 쉬어 갑니다.

히메시마 본오도리 姫島の盆踊り



2012년에 국가 지정 무형 민속 문화재로 지정된 히메시마 본오도리(백중맞이 춤)는 가마쿠라 시대(1185~1333) 불교의 염불 춤에서 파생된 것으로, 기쓰네 오도리(여우 춤), 아야 오도리 등의 전통춤이 지역 아동과 주민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춤과 더불어 새로운 창작 춤도 생겨나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본오도리는 매년 8월 14~16일에 개최되며, 14~15일은 야간 페리를 임시 증편합니다.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1월(제79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역사가 느껴지는 한적한 마을에서 즐기는 산책

우스키 석불&성하 마을 우스키시 臼杵市

예전에 같이 일을 했던 우스키 출신 직원이 해외 손님에게 드릴 선물로 '우스키 석불 전병 과자'를 사 간 적이 있는데, 상자에 커다랗게 그려진 석불의 머리가 대단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난다. 오늘은 그 석불이 있는 우스키 석불 공원과 성하 마을의 시설 두 곳을 소개하고자 한다. (오이타 시내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환승 없이 갈 수 있어 편리했다!)



(왼쪽) 호키 석불 제2군 제1감실 '아미타여래좌상'
(오른쪽) 호키 석불 제1군 제2감실 '아미타여래좌상'

대부분 헤이안 시대(794~1185)와 가마쿠라 시대(1185~1333)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마애불이 모여 있는 우스키 석불 공원. 이곳에서는 전국 최초 국보로 지정된 총 61좌의 마애불을 <①호키 석불 제2군 ②호키 석불 제1군 ③산노산 석불 ④후루조노 석불> 이 네 곳의 석불군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석불의 모양을 매우 두껍게 드러나게 깎는 '고부조' 방식을 사용하여 입체감이 더욱 느껴지고 석불의 이목구비가 뚜렷한 점이 특징이다.



(왼쪽) 산노산 석불 '여래좌상'
(오른쪽) 후루조노 석불 '대일여래좌상'

아쉽게도 정확한 제작 연대나 만든이에 대한 사료가 일절 남아있지 않아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으나, 매우 뛰어난 조각 기술과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러한 불상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서인지 '국보 우스키 석불 아름다운 불상 총선거'라는 행사를 개최하는데, 2021년에 진행된 선거에서는 총투표수 9,057표 중 '호키 석불 제1군 제3감실의 대일여래좌상'이 최다 득표를 했다고 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석불인지 궁금한 분은 직접 우스키를 방문해 불상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특별 기원 법요식

또한, 일 년 중 1월, 5월, 9월에는 후루조노 석불 앞의 소원함에 담긴 소원 종이를 우스키시 불교회의 승려가 낭독하고 부처님께 바치는 법요식(불교 의식)이 진행된다. 봉납 후에는 대승 불교의 경전 '대반야경'을 펼쳐 바람을 맞고 어깨를 툭툭 쳐 건강을 기원하는데, 처음 보는 광경이라 다소 생소했으나 경건하게 받아들이고자 했다. 사전 접수 없이 당일 법요식을 참관하면 참가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은 우스키 석불 공식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하자.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1월(제79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아줄레주 벽화 <포르투갈과 우스키의 영원한 우정>

우스키의 성하 마을은 16세기에 오이타현(분고국)을 지배하던 당주 ‘오토모 소린’이 1562년에 우스키성을 지으며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또한, 소린이 외국과의 무역을 영원하여 선교사 하비에르의 기독교 선교 활동을 허가한 것을 계기로, 포르투갈 선박이 우스키 만의 항구에 들어오며 많은 교류를 했는데 그 흔적도 마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스키시 뿐만 아니라 오이타현과 포르투갈의 역사가 담긴 총 14종의 아줄레주 벽화(포르투갈식 타일 장식)는 ‘구게 창고(久家の大蔵)’에서 볼 수 있다.



구) 우스키 번주 이나바 가문 별장

1600년부터는 ‘이나바 가문’이 번주로서 우스키를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현재 성하 마을의 모습은 대부분 그때 형성된 것이라고 한다. 1800년대 후반, 폐번치현 조치에 따라 번주가 도쿄로 이주했으나 우스키에 돌아왔을 때 머물 장소가 필요해 1902년에 이 저택(별장)을 지었다. 비교적 근대에 지어진 건물이나 잘 관리된 정원과 ‘쇼인즈쿠리(書院造り)’ 건축 양식으로 만들어진 점에서 국가유형문화재로 지정된 통치자의 저택 안을 걸어 보자.



노가미 아에코 문학 기념관(※내부 촬영 금지)

이러한 역사를 가진 우스키에는 규슈 내 간장 생산량 1위를 차지하는 조미료 제조 업체 ‘훈도킨’의 본사가 있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성하 마을에 훈도킨 창업주의 장녀이자 소설가인 ‘노가미 아에코’의 원고와 유품 약 200점을 전시하는 기념관이 있다. 만 99세에 유명을 달리할 때까지 ‘가이진마루(海神丸)’, ‘마치코(真知子)’ 등의 대표작을 남긴 그의 생애가 궁금하다면 방문해 보길 바란다.

고대부터 근대까지 온 마을이 역사로 가득한 우스키에서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즐겨 보자.



우스키 석불 공원 (臼杵石仏公園)

- 주소 : 臼杵市深田804-1(〒875-0064)
- 운영 시간 : 09:00~17:00(연중무휴)
- 입장료 : 대인 550엔 / 소인 270엔



구) 우스키 번주 이나바 가문 별장 (旧臼杵藩主稻葉家下屋敷)

- 주소 : 臼杵市大字臼杵6番6(〒875-0041)
- 운영 시간 : 09:00~17:00(연중무휴)
- 입장료 : 대인 330엔 / 소인 160엔



노가미 아에코 문학 기념관 (野上弥生子 文学記念館)

- 주소 : 臼杵市浜町538(〒875-0041)
- 운영 시간 : 09:30~17:30(연중무휴)
- 입장료 : 대인 310엔 / 소인 150엔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1월(제79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노지 in 오이타

23화

노지가 소개하는
한국문화①

나이에 대하여!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
기묘년



사실 한국인들은 새해가 되면
나이를 먹이에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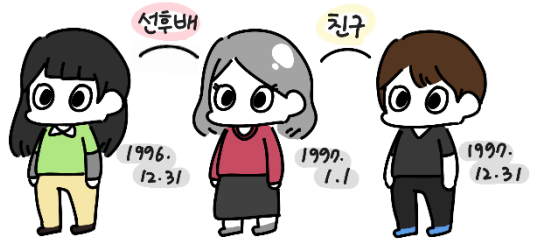
한국은 많은 다른 나라와 달리 '세는 나이'를 사용하는데

* 사실 한국인은 세가지 나이를 갖고 있습니다.

- ① 만 나이
 - 태어나면 0세
 - 생일마다 + 1세
- ② 세는 나이
 - 태어나면 1세
 - 새해마다 + 1세
- ③ 연 나이
 - 현재연도
 - 출생연도 나이



출생 연도가 같으면 동갑이기에
종종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도 법이 바뀌어
올해 6월 28일부터 '만나이'를
사용하게 되었다! (일본과 동일)



한동안 헷갈릴 듯하고
솔직히 아직 실감은 안나지만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겪는 건 설렌다 <



여
나이가 여러개라
생일 케이크에
촛불 몇개 꽂을지
고민하던 추억도
이젠 안녕!